

## 미국 마감 상황

2008.11.04

이승준 02) 2009-7088  
leesj@leading.co.kr

3일 뉴욕증시는 자동차 판매와 미국 제조업활동이 최악의 상황을 나타낸 가운데 미 대선을 하루 앞두고 관망세가 확산되며 혼조세로 마감.

다우지수는 전일대비 5.18p(0.06%) 떨어진 9,319.83에 장을 마감.

S&P500지수는 2.45p(0.25%) 하락한 966.30, 나스닥 지수는 5.38p(0.31%) 상승한 1,726.33을 기록.

미국 공급자관리협회(ISM)는 10월 제조업지수가 전월의 43.5에서 38.9로 낮아져 1982년 9월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발표. 당초 예상치인 41.5~42를 크게 밑돌며 제조업활동이 26년래 최악의 수준으로 위축.

미국의 10월 자동차 판매 또한 1990년대 초이래 최악의 감소율을 기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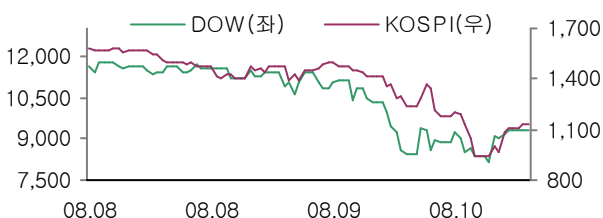
GM의 판매는 전년동기대비 45.1%, 포드 30%, 다임러 24.5%, 도요타 23% 감소를 기록.

국제유가는 지표 악재로 실물경제에 대한 우려가 지속되며 4달러 하락. 12월물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 가격은 배럴당 3.90달러 급락한 63.91달러에 마감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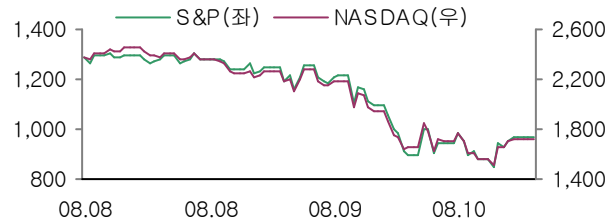
하지만 런던 은행간 대출금리인 리보금리는 연일 하락세를 이어가며 신용경색 완화 신호. 3개월만기 리보금리는 지난주대비 17bp 하락한 2.83%를 기록. 하루짜리 리보금리는 2bp 내린 0.39%를 기록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| 지수        | 종가       | 1일    | 5일    | 10일   | 1개월    | 3개월    | 12개월  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DOW(좌)    | 9,319.83 | -0.06 | 13.99 | 0.59  | -9.74  | -17.72 | -31.45 |
| S&P(좌)    | 966.30   | -0.25 | 13.83 | -1.94 | -12.09 | -23.33 | -35.99 |
| NASDAQ(우) | 1,726.33 | 0.31  | 14.64 | -2.47 | -11.35 | -25.30 | -38.57 |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\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\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\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